

미국 이슈 코멘트

미국 기업 & 산업 | 2026.07.02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esearch Assistant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메타 사태: AI 반도체가 무릎을 꿇었던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AI 인프라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

- 메타의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AI 반도체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벌써 AI 반도체 수요 약화를 걱정하는 것은 과하다. 메타의 새로운 사업 진출은 재무 부담을 덜고, 성장하는 인공지능 산업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기 위함이다. 시장참여자들은 메타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를 반기면서도 재무 부담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초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서버 투자는 플랫폼 확장 및 매출 확대로 이어지지만, 메타의 AI 인프라 투자는 비용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메타의 신사업 진출은 강한 AI 수요를 시사하며, 2분기 실적 발표에서 플랫폼 기업들의 자본지출 전망이 더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 현지시각 7월 1일 메타가 인공지능 클라우드 인프라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이 있었다. 메타 주가는 8.8% 상승 마감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6.3%)는 급락했다. 메타가 잉여 컴퓨팅 자원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메타는 이번 AI 투자 사이클에 자본지출을 공격적으로 늘리던 주요 기업 중 하나다. 남은 컴퓨팅 자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과잉투자 및 자본지출 축소 우려로 번졌을 가능성이 있다.
- 메타의 신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은 AI 인프라 수요가 강하다는 증거다.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고(ROIC), 재무 안정화와 재투자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을 것이다. 메타의 의사결정 근거는 스페이스X와 엔트로픽, 알파벳 등의 계약을 통해 가능해 볼 수 있다. 스페이스X는 세 개의 사업부 중 AI 사업에 가장 큰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FY 2025 기준 자본지출은 발사체 약 38억 달러, 위성통신 약 42억 달러, AI 약 127억 달러다. FY 1Q26 기준으로 AI 약 77억 달러, 발사체 약 11억 달러, 위성통신 약 13억 달러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AI 사업부 매출 비중은 17.1%로 가장 낮지만, 집중적으로 투자한 이유는 강한 수요와 빠른 성장이다.
- 스페이스X의 콜로서스1에 들어간 자원은 엔비디아 GPU 22~23만 개로 알려져 있다. Tom's Hardware에 따르면 초기 도입된 H100 10만 개와 추가 5만개를 감안하면 H200은 약 5만 개 수준으로 판단된다. GB200은 보수적으로 3만개 수준으로 가정하면 콜로서스1의 GPU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보수적으로 H100 2.8만 달러, H200 3.5만 달러, GB200 4.5만 달러 등을 적용하면 총 GPU 투자액은 73억 달러다. 가중평균 단가는 GPU당 약 3.2만 달러다.
- 스페이스X는 엔트로픽에 2029년까지 엔비디아 GPU 22만 개를 월 12.5억에 제공하기로 계약했다. 계약 총액은 약 450억 달러(36개월 x 12.5억 달러)이며, 연매출 기준 약 150억 달러다. 스페이스X는 알파벳에게 2029년까지 엔비디아 GPU 11만 개를 월 9.2억 달러에 공급하기로 했다. 계약 총액은 약 331억 달러(36개월 x 9.2억 달러), 연 매출은 약 110억 달러다. 두 계약을 합하면 연 환산 약 26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 FY 2025 자본지출 규모인 127억 달러보다 크다. 콜로서스 1의 초기 클러스터 가동 및 20만 GPU급 확장 등이 2024~2025년 사이에 이뤄졌고, 2026년 엔트로픽과 알파벳 등과 대형 컴퓨트 계약이 체결됐다. 스페이스X는 AI 인프라 투자 이후 1~2년 내 대규모 매출 계약을 확보한 것이다.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가 단순 비용 증가가 아닌 외부 임대 및 클라우드 매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메타의 신사업 추진 가능성 보도 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함께 네오클라우드 기업들도 급락했다(CRWW -13.9%, IREN -5.3%, NBIS -17% 등). 초대형 경쟁사 등장 우려 때문이다. 코어위브의 북미 데이터센터 GPU당 단가는 GB200 NVL 72 10.5달러부터 HGX H100 6.16 달러까지 형성돼 있다. 스페이스X와 엔트로픽 계약을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GPU 당 약 7.8 달러/h다. 알파벳의 계약은 약 11.5달러/h다. 콜로서스의 GPU 구매원가(가중평균 3.2만 달러) 대비 각각 약 5.6개월, 3.8개월이면 회수되는 수준이다. 3년 계약 기간 대부분이 순수익 구간임을 의미한다. 대규모 AI 클러스터가 임대 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높은 투자 회수력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메타의 신사업 진출은 수요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금 회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도 마찬가지로일 것이다.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자본지출 가이드스를 상향시킬 여지도 있다. 이번 AI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는 펀더멘털 훼손이 아닌 과잉 반응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단기 투자심리가 약할 순 있으나,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하반기에 추천한 AI 관련 기업 및 7월 추천한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 하반기 전망 추천 AI 관련 종목: MU, NVDA, STX, COHR, ALAB, AMD, GLXY 등
 - 7월 미주 PICK하나 추천 반도체 장비 기업: LRCX, KLAC, ONTO 등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7월 2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7월 2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